



불서읽기 캠페인

내 인생의 불서 한권

티벳의 성자를 찾아서  
맥도널드 베인 | 정신세계사 | 1984  
전정봉 카이스트 교수

### ‘내안의 실재’에 눈 뜨는 계기

“나는 종로에서 ‘티벳의 성자를 찾아서’ 서성거렸다.”  
나는 25년 전 서울 종로거리 책방에서 이 책을 만났다. <티벳의 성자를 찾아서>, 마치 순례기를 쓴 것처럼 쓰여진 이 책은 맥도널드 베인의 역작이다.  
이 책은 파문된 채로 잠들어있는 ‘내안의 실재(內的實在)’를 눈뜨게 해준 책이다. ‘참나(眞我)’가 지닌 모든 힘과 가능성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책이기도 했다. 우리가 자각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한정된 생명의 작은 ‘나’가 아니라 우주 움직임의 중심이며, 온 세상의 모든 힘과 직접 연결이 되어있는 큰 존재다. 그러므로 ‘나’란 곧 우리자신의 의지에 의하여 농락되는 운명의 노리개가 아니라 조잡한 몸통이 속에 갇힌 그 하찮음과 고뇌에서 해탈을 함으로써, 스스로

것들을 냉정하게 그리고 치우침 없이 가려냄으로써 마음을 비워야 한다. 그러면 시간을 초월한 고요가 발견 될 것이며 그 속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배울 것’이었다.  
무신론자는 자기가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종류가 다른 신앙을 지니고 있는 것이며, 바로 그것이 불교의 이해를 방해하는 것이다. 우리 마음의 구석구석을 뒤져서 거기에 스



### ‘我’가 지닌 힘과 가능성 깨닫게 해 마음 비우면 부처님의 진리 배울 것

깨달은 자연의 주인이라는 것을 느끼게 한 책이었다. 그때 바로 그 종류의 인연이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다.  
이 책의 무엇보다 큰 미덕은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진리의 일면일 뿐인 온갖 관념, 사상·이념·교양 따위의 알음알이 일체를 넘어선 저편으로, 독자란 우리를 안내해 준다는 점에 있다. 어리석은 작은 나의 마음에 신성(神聖)의 초월적인 힘을 도입하여 정신과 육체를 바탕에서부터 바꾸어 놓고, 물질 속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나타내게 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했으니 말이다.  
내가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은 특히 “부처님의 길을 따라, 불교에 귀의 하려한다면 먼저, 지금까지 읽고 들어온 모든

스스로 만들어 쌓아놓은 온갖 관념과 공식은 우리를 직시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참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게 되는데, 그것을 이 책에서 여러 성자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이 책을 통해 내안의 부처님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도 내게는 큰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 해의불사에 대한 눈을 새롭게 뜨게 되고, 제자들과 함께 영어공부를 하면서 <금강경>을 영문으로 변환하도록 만든 계기도, 불교에 점점 가까워진 것도 어쩌면 <티벳의 성자를 찾아서>를 만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음지도 모른다.

현대불교 후원 | 계좌번호 038-25-0008-365  
국민은행, 예금주:에이치비엠씨

민족사 ‘왕초보’ 시리즈 인기몰이 내년까지 15권 출간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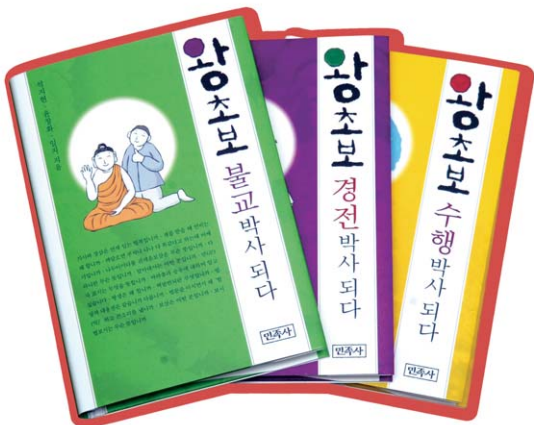
## 불교박사되고 싶은 왕초보 다 모여라

책 한권을 읽고 박사(博士)가 된다? 그것도 왕초보가. 정말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박사라는 개념을 학사 석사 다음의 박사도 이해하지 않고 그저 글자풀이 그대로 두루 잘 아는 사람 정도로 이해한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도 있다. 특정 분야에 대해 기본적인 것을 두루 아는 것만으로도 박사 소리를 들을 만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민족사(사장 윤창화)의 기획물 ‘왕초보’ 시리즈를 주목해 보면 박사 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꾸준히 인기를 누린 <왕초보 불교박사 되다>(석지현 윤창화 일지 공저)가 지난 5월 개정판을 냈고 이에 앞서 4월에 제한 스님(동국대 교수)의 <왕초보, 경전박사 되다>가 나왔다.

최근 조계종 포교연구실 고명석 선임연구원이 쓴 <왕초보, 수행박사 되다>가 나오며 ‘왕초보’ 시리즈의 행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앞으로는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 유마경, 천수경, 아함경 등 경전과 선, 교리와 지식, 문화, 부처님 생애, 한문 등을 주제로 한 시리즈가 계속 쏟아져 나올 예정이다. 민족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15권의 ‘왕초보’ 시리즈를 다 낼 계획이다.

왕초보 시리즈로 나온 3권의 책은 정말 왕초보들에게 쉽게 다가서고 있을까? 2002년 첫 선을 보인 <왕초



주제별 집중적으로 쉽게 전달이 기획 포인트

독자 ‘수준’ 염두해 편안한 글 필자에 주문

보 불교박사 되다>가 8쇄를 찍고 올 봄에 개정판을 낸다는 점을 미루어 나름대로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독서모임이나 교양대학에서 교재로 채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원래는 왕초보가 아니라 왕초보란 말을 쓰려고 했습니다. 이 시리즈의 독자를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2학년 이하의 연령대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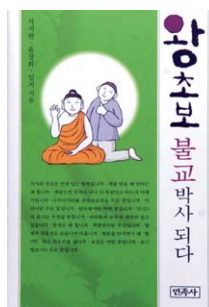
윤창화 사장의 기획 의도는 간단하다. 불교를 주제별로 집중적으로 쉽게 전달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를 양성하게 이해하는 불자가 아니라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이해하는 불자가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올바른 수행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족사는 필자들에게 독자의 ‘수준’을 염두에 두고 가장 쉽고 편안한 글을 주문하고 있다.

“쉽게 쓴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 줄은 압니다. 그러나 불자들이 불교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해하여 생활화 하기 위해서는 쉬운 언어와 쉬운 해설을 담은 체계적인 책을 만나야 합니다.”  
윤창화 사장은 불교 교리서나 경전, 수행 등에 관한 서적은 어렵다는 선입관을 깨기란 쉽지 않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쉽게 쓴 불서의 필요성은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다. 평범한 불자나 불교에 갓 입문한 초심자가 교리나 경전 수행 관련 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교사전을 찾아가면서 읽어야 하는 게 현실이다. 불교사전의 해설문장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여서 사전을 이해하려고 다시 사전을 찾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쉬운 불서를 통한 불교 제대로 이해하기”를 모토로 하는 ‘왕초보’ 시리즈의 인기몰이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 민족사에서 나온 ‘왕초보’ 시리즈 엿보기



■왕초보 불교박사 되다  
불교의 교리나 의식, 절집의 문화, 수행생활 등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용어들에 대한 해설이다. 불교에 귀의해서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이 한권의 책이 해결해 준다. 초심자 뿐만 아니라 오래 수행생활을 해온 불자라 할지라도, 어떤 용어나 교리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지만 막상 설명하려면 앞이 꼭 막히는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이 책을 펼치면 답이 보인다. 가사나 잠상 등의 의복에 대한 설명도 상세하지만, 주지 스님은 어떤 일을 하는 분인지, 종정 스님은 어떤 분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도 들어 있다.



■왕초보 경전박사 되다  
불교에는 다양한 경전이 있다. ‘팔만대장경’이라고 할 정도로 경전의 수는 많다.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모든 경전이 어렵다는 생각도 갖게 된다. 한자나 팔리어 등의 경전이 오늘날 우리의 일상 언어로 번역되기까지 역사도 장구하다.



■왕초보 수행박사 되다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라는 말은 불교는 수행의 종교라는 말과 같다. 수행이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인 것이다.  
그런데 수행도 다양하다. 엄밀한 사경 절하기 등등. 전통적으로 전해온 수행도 있고 시대에 따라 변

거기다가 각 경전이 내포하고 있는 사상체계도 결코 쉽지 않다. 그렇다고 경전을 무시하고는 불자가 될 수 없다.  
경전의 성립 배경과 구성형식은 물론 <금강경> <화엄경> 등 48가지의 대표적 경전에 대한 성립동기와 주된 가르침 등이 설명되어 있다.

가되는 수행법도 있다.  
수행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참다운 불자도 될 수 없다. 이 책은 바로 수행의 정의와 각각의 수행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하고 있다. 간화선, 유희사나, 염불, 절, 간경, 주력 수행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생활 수행의 실천을 위한 안내를 덧붙였다.

## 양지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 승무복, 모듬복 · 장고 · 징 · 팽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습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방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 해동불교무량종 종도모집

해동불교무량종은 석가모니부처님의 자각 계승, 각행원만의 근본교리를 바탕으로 상구보리해와 중생의 보살도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생활 속의 적극적인 포교를 중지로 합니다



- 총재 및 조실 : 김정일 (법일 대종사)
- 중정 대행 총무원장 : 학성 (무량 대종사)
- 중앙고시법제위원장 : 박찬욱 (준파 종사)
- 중앙교육위원장 : 신원식 (도우 종사)
- 중앙포교위원장 : 이광춘 (해엄스님)
- 중앙사정위원장 : 김광운 (성일스님)
- 비 서 실 장 : 조중훈 (광원스님)

- ◆사암등록 입증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 이력서 소정양식 1통
- 승려, 교민, 전법사 신고서 1통
- 명함판 사진 7매

### (재) 해동불교무량종

총본사 : 전남 여수시 소라면 관기1구 10번지 무량사  
전화 061)683-7147 / 010-3114-4074

\*입중시 사암등록증과 주지인명장과 법계증서, 수료증서, 승려증을 드립니다.



## 우담바라 신묘장구 대다라니 만득



귀의 삼보 하옵고, 경주 남산 천선사에서는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철야법회를 2008년 5월 24일부터 2011년 2월 14일까지 천일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천선사 신도님들께서는 많은 기도 정진 하셔서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불보살님께 가피력으로 각 가자마다 공덕을 길이길이 쌓으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대한불교선종 총무원 천선사 주지 정관 합장

전화 054)748-0462 / 휴대폰 016-509-0462  
FAX 054)771-6606

## 조계종 77조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사

- 전등록 전5년 / 법사 무관 / 법사 법암록
- 천부경 / 보살 금강경 / 보살 신심명 / 보살 중도가
- 반야심경 / 보살 선문염수 전30권 중 11권
- 환단고기 전5권 / 보살 범용선사 심명
- 선가귀감 / 주머니 속의 심경 / 영원한현실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뚝산에 찻논 희다
-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 세월을복제로세삼을복삼아

### 법회 안내

-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육조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수 031-531-8805
-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수 062-944-4088
-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육조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0122 www.zenparadise.com